

타이어 輸出現況과 振興方案

經濟通信 記者

池 益 祥

1. 序 論

世界的인 經濟成長 趨勢에 따라 先進國의 所得增大와 開發途上 國家들의 社會 間接資本 確保를 위한 道路交通網의 擴大는 필연적으로 自動車의 補給을 促進케 했으며 그 部品인 「타이어·튜우브」의 需要는 擴大一路를 달려왔다. 「스피드」時代에서 運搬手段으로서 자동차가 脚光을 받고 있는 이상 「타이어·튜우브」의 需要는 계속 增加할 것이 豫상되는 한편 그것이 消耗性이 높은 商品이라는 點으로 봐 앞으로 有望한 輸出 商品으로서 기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境遇 타이어의 主要 原資材로 되고 있는 天然 고무, 合成고무와 其他 化工藥品 등을 거의 輸入에 依存하고 있을 뿐 아니라 先進國에 비해 落後된 製造施設 등은 同品에 대한 앞으로 輸出展望에 대한 樂觀을 不許케 하고 있다.

2. 타이어 輸出動向

우리나라의 「타이어·튜우브」가 처음 輸出된 것은 1962년에 「泰國」에 42,000\$과 「파키스탄」에 50,000\$로 不過 92,000\$ 상당의 2,000本이 輸出케 되었던 것이다. 그후 「타이어」 輸出은 계속 增大하여 65년에 들어서 부터 輸出은 本格化하여 그 輸出額로 98萬\$로 大幅 증가를 시켰다. 한편 輸出 市場面에서도 「泰國」, 「파키스탄」등 東南亞 市場에 국한 하던 것이 美國, 이란, 요르단, 영국 등 美洲와 中東地域으로 擴大되어 市場이 多邊化되는 증조를 보였다. 66년에는 1,195,175\$, 67년에는 1,358,207\$ 그리고 68년에는 1,217,834\$에 이르러 62年度에 비해 20 배의 높은 輸出신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외국에서는 美國, 日本, 英國, 불란서, 서독 등 先進國의 「타이어·튜우브」 生産과 輸出量은 最近 活潑한 增加를 보고 있는 데다 泰國, 印度, 터키 등 東南亞 諸國의 타이어 튜우브의 自給度도 역시 매우 上昇하였으며, 아프리카 및 中南諸國의 타이어工業도 팔목할 만한 發展을 보였다. 이러한 타이어工業의 世界的인 發展相에도 不拘하고 世界 多大數 國家들은 國內生産만으로 國內需要를 充足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消費性增大와 工業化 및 産業用 車輛增大

로 인한 自動車需要의 적증은 「타이어·튜우브」의 需要와 직결되어 同品の 輸入需要는 계속 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傾向에 따라 최근 몇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타이어 튜우브」의 輸出도 날로 成長하여 왔던 것이다.

또한, 태국에서만 하더라도 그 比重은 歴도적이었다. 우리나라의 泰國에 대한 타이어 輸出은 65年 總輸出額 98萬달러중 71萬9千달러, 66년에는 1百38萬2千弗 중 95萬\$에 이르고 있어 우리 나라 「타이어·튜우브」 年間 輸出額의 70~7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泰國은 우리나라의 타이어 輸出의 황금 市場이었었다. 이러한 過大한 泰國의 타이어 輸入傾向은 泰國의 國內業界로 하여 新市場의 開拓과 泰國內 타이어 工場建設을 促進 하였으며 이 결과 68年 그 輸出實績은 大幅 減少하여 겨우 44萬달러로 67年 總輸出額 12萬\$ 중 27%를 下廻하고 있었다. 이러한 對泰國 타이어 輸出不振의 主原因은 前述한 것 이외도 최근에 와서 日本業者들의 「턴 평」으로 인해 泰國國內 需要量의 60%를 供給하고 있는 自動車 타이어工場인 「Firestone」社가 國內 出荷價格을 대폭 下落시킨데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밖에는 泰國의 「타이어」 輸出의 展望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은 泰國 政府의 쿼타制 實施와 日本의 「Bridgestone」社와 泰國業界와 合作投資로 「Thai Japan Tire」社를 設立 年間 25萬本 生産을 目標로 今年 1月 22日 同工場이 가동함으로써 우리의 輸出市場은 그 어느때 보다 경색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對泰國의 「타이어·튜우브」 輸出量 減少와는 대조적으로 近來 우리나라의 輸出市場도 점점 中近東, 아프리카 地域으로 擴大되고 있어 輸出市場은 多域化되었다. 자마йка, 이란 등 中近東과 아프리카 地域의 68年 輸出額은 60萬\$弗로 인하여 全體輸出實績의 60%를 占하고 있어 同地域에 대한 輸出增大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過去 우리나라 타이어 튜우브의 輸出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泰國市場이 좁혀지고 있을 뿐 더러 치열한 國際경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過去와 같은 單一市場에 대한 集重輸出攻勢를 지양해야 할 뿐 아니라 新規市場 開拓에 대한 積極적 宣傳活動이 要請되고 있다. 특히 過去實績으로 봐 극히 미비했으나

막대한 量의 「타이어 튜우브」를 國際入札에 의하여 輸入하고 있는 越南 市場에 침투를 시도하는 것은 어찌면 우리나라 「타이어·튜우브」輸出의 어떤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輸出增大의 里程表가 될 것이다. 올해 타이어 輸出의 累計는 11月末 現在 1百30萬弗로 今年度 輸出目標 2百20萬弗에 비해 54%의 아주 저조한 實績을 보이고 있어 今年度 輸出目標 達成이 사실상 難重視되고 있다.

3. 輸出振興方案

이와 같이 「타이어」輸出이 急降下한 것은 물론 海外市場의 開發性, 輸出採算性缺如, 輸出競爭力鈍化, 宣傳活動 等の 취약성에서 오는 諸般 原因이 겹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國內 自動車業界가 마이카時代의 到來을 외치면서 淸한 活潑한 自動車供給에 따라 無限臺로 增加하는 內需 「타이어」의 需要가 어느때 보다 擴大를 보이고 있는 데다 「타이어」의 輸出採算性 惡化는 「타이어」業界의 強力한 輸出意慾을 상실케 하고 있다는 點이다. 한 企業의 永續的 發展을 위해 輸出은 한 企業의 必須過程인데 이와 같이 惡化된 輸出採算性은 業者들로 하여금 외국차관업체라는 運命的 立場에서 輸出을 試圖케 하려고 하니 輸出은 眞은 進展을 보일 수 없는 것이다.

사실상 輸出採算性的 確保는 우리나라 「타이어」工業의 發展의 關鍵이 되고 있다는 點에서 볼 때 合理的인 輸出間接補償制度 채택이 하루속히 要求되고 있다. 政府가 오는 70년부터 施行하려고 하는 輸入링크 品目으로서 「고무」를 「타이어」輸出業者에게만 그 實績에 따라 「Share」를 策定, 그 輸入權을 政策的으로 뒷받침할려는 것은 우리나라의 餘他輸出 商品의 間接支援策에 비하면 오히려 메뚱은 감이 들고 있다.

둘째로 「타이어」의 原資材로 되어 있는 合成고무, 天然고무, 其他 化工藥品 등은 거의 輸入에 依存하기 때문에 輸出경쟁력은 越等히 鈍化되고 있다. 비근한 예로 인접 日本에 비해도 輸出價格이 현저히 높아 벌써 價格面에서 다른 나라에 뒤지고 있다는 事實에 비추어 그 對策은 時急하다.

우리 나라의 立地的 條件으로 보아 天然고무의 生産 不能은 탓할 수 없는 일이지만 「타이어」製造에 있어서는 안될 合成고무의 生産은 自然的 또는 地理的 條件을 超越하여 능히 解決할수 있는데도 아직 까지도 「合成고무」를 國產化하지 못했다는 事實은 「타이어」輸出 競爭力을 鈍化시키는 絶對的 要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도 우리나라 「타이어」工業이 系列化를 이룩하지 못했다는 증좌이기도 하다. 外國의 경우 「타이어」製造에 있어 天然고무 보다 合成고무 혼합 비율을 보다

높이 구성케 함으로써 「타이어」의 製造原價를 크게 切下시키고 있다는 點을 감안 할때 合成고무의 國產化는 火急을 要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타이어」主原料로 되고 있는 「나이론 코오드」의 國產品 價格이 日本產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點이다. 日本產 나이론 코오드는 kg 당 6百60원 인데다 質도 良質로서 評價되고 있는데 韓國產은 kg 당 1千30원이라는 越等히 높은 價格으로 策定되어 있을 뿐 아니라 其他 化工藥品의 높은 관세율은 「타이어」의 코스트 업을 促進시키고 있는 結果를 초래하고 있어 當局의 이에 대한 성의 있는 對策이 時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셋째로 生産施設의 첨예화다. 高度화된 生産技術은 原價切下와 直結되며 輸出競爭力 強化와 一致하기 때문에 이 問題는 重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타이어」生産施設이 계속 外國차관에 의한 그 施設을 擴充, 自動化 했으나 그렇다고 그것이 가장 經濟的인 單位이며 첨예화된 生産施設 이라고 할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접 日本施設에 比하여 時間當 生産量은 越等히 韓國이 下廻하고 있다는 點과 그 製造技術面에서도 熟練된 天然고무와 合成고무의 混合技術은 「타이어」의 製造原價를 크게 下落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타이어製造에 있어 合成고무의 技術의 配合는 耐久性과 耐熱性이 높은 製品을 生産하여 製品의 越等히 高級化 하고 있다는 點이다. 이와 같은 經濟的 規模의 生産施設과 向上된 製造技術은 아주 적절한 Cost-down 을 가져올 수 있어 輸出競争에 있어 아주 유리한 위치를 확보케 한다.

네째로 輸出市場의 多域化이며 그 深化가 要請되고 있다. 67年度 까지 우리나라 「타이어」輸出은 泰國市場一邊에 있었는데 그후 泰國市場이 크게 침체하자 우리나라의 「타이어」輸出伸張은 相對的으로 감소를 나타내고 目標額 達成 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는 點이다.

우리가 이러한 經驗에 비추어 보아 아직도 「타이어」의 自給化가 이룩되지 않고 있는 아프리카와, 經濟開發에 總力을 기울이고 있으면서도 尤大한 石油輸入으로 資源이 豊富한 中近東 市場을 擴大함으로서 特定地域中心의 輸出傾向을 止양하고 輸出市場의 多變化를 俾하여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이미 획득된 우리의 기존 輸出市場이라 하더라도 그 輸出實績을 보면 去來의 初期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中近東 國家들의 「타이어」各國別 輸入實績을 보면 우리나라 輸出은 그 Share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製品을 高級化 내지 다양화 하고 계속적인 신의를 지키는 동시에 對外的인 宣傳活動 強化와 同地域에 대한 市場침투의 深化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